

에드먼튼 소망교회 Edmonton Hope CRC

꿀찌박사

2021 05 30



양미자 권사

이 책에서 소개 된 미국 대학의 수학문제 중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차를 운전하는 것과 비보험자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 중 어느 것이 경제적인가에 대한 질문은 나의 경제관념에 대한 사고의 유연성을 충분하게 자극해 주는 부분이다. 나는 이 부분에서 받은 경제적 사고유연성을 곧바로 자녀들에게 흘려보냈다.

이 책의 저자인 조명환님께서 자신이 겪은 일들을 기록하고 또 그 상황에 맞는 성경구절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며 이 분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는지를 생각하게 했다. 아울러 이 분의 몸은 온통 성경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어느 한 곳을 꺾 누르면 곧바로 성경말씀이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과 함께 나에게 큰 은혜와 도전을 받게 한 책이다.

이은주

저자가 책을 통해 이 책이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은 살아 계셔서 저자의 삶속에서 능력으로 돌보시고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였음을 알 수 있었다

가난한 환경이었으나 외할머니와 부모님 에드나 어머니의 기도와 말씀의 양식이 풍성하게 넘치는 축복받은 삶이었다. 하나님께서 에드나 어머니의 편지를 통해서 보내신 말씀은 너무 간단한 문장이지만

강하고 많은 것을 포함한 말씀이라서 큰 은혜가 되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그분을 믿어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에드나 어머니의 편지를 통해서 내게도 주시는 말씀같이 느껴졌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내시는 많은 이야기와 사건들이 흥미진진 했다. 인생의 몇 안 되는 행운 같은 일과 평범한 일상도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과 은혜였음을 을 다시 한번 생각했다.

에이즈로 고통받고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하나님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노력하는 삶의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았다.

4차 산업혁명과 그리스도인에 대한 부분에서 큰 공감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복음 전할 사람들은 현재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이 가져올 세상의 변화를 적극 활용해, 하나님나라의 확장을 위해 힘써야 할 사명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우리가 선한일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음 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니 우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기대 하신다는 말씀을 실천하며 살기를 소망한다.

최고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여 사용하실까? 세상에서는 탁월한 재능, 해박한 지식, 풍부한 경험이 중요한 반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세상의 미련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 그리고 멸시 받는 사람들을 택하시어 누구든지 자랑 하려거든 주님 안에서자랑 하기를 원하신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겸손한 자의 가난한 마음, 울며 회개하는 상한 영혼, 주님의 말을 두렵게 여기고 기꺼이 따르는 순종, 바로 이런 것들을 원하신다.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에 기준과 다르다.'

조명환 박사의 에세이이자 간증을 읽고 나서 느낀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은 성경의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이고난의 연속이지만 주님의 뜻에 따라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다. 생면부지 에드나를 통한 후원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며주님의 경륜하심을 아무것도 아닌 그의 인생을 통해 이루시며, 그 또한 누군가를 후원하게 되는 인생이 놀랍다. 앞이 캄캄할 때기도하면 고난의 시간도 값진 훈련의 시간이 된다. 그리고 그 기도를 나눌 때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걸 배웠다.

Ella Min

조명환 교수의 드라마 같은 일대기를 읽고 함께 나누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였다. 이 분의 삶은 어느 하나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어느 하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던 곳이 없을 정도로 삶의 여러부분이 연결고리로 이어져 지금의 '조명환'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양한 분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고, 이 분의 담대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전세계에 알릴 때 까지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어려서부터 힘들었던 환경 속에서도 외할머니, 부모님, 에드나 어머니까지 삼겹 줄의 중보기도 팀의 힘은 강력했으며, 결핵으로 인한 고통의 순간 또한 더 미래를 위한 주님의 계획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양한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그에게 불럼버그 박사를 보내시어 여러 세상을 경험할 수 있었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동역자(서정진 회장 외)들을 보내시어 '나' 가 아닌 '우리' 일때 몇 배 이상의 힘을 발휘 함을 알게 하셨다. 그 후에도 하버드로, 에이즈 학회장으로서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하셨

고 이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놀라움으로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주님은 들플보다 소중한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신다.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한다면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 또한 담대히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한다. 더불어 나도 언젠가는 주님의 자녀로 쓰임받는 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해본다.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Kate Jung

작가인 조명환박사님은 진심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오셨고 그분의 성실함, 재능 그리고 그재능의 나눔도 하나님 중심 이였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나는 살아오면서 성공의 순간이건 최악의 순간이건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곧잘 망각하게 됨을 이책을 통하여 또한번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두분 어머니의 기도는 박사님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하셨고 박사님은 기도와 비전으로 또많은 생명에게 열매를 맺게하셨습니다. 지금 저의 자리는 그어머니들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면서 무엇보다 기도와 사랑으로 미래의 열매를 키워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